

전남도 인구감소·고령화 대비 도시계획 나서

외곽 개발 억제·기존 도심 활성화

신규 도시재생사업 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

전남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 등에 대비한 도시계획에 나선다.

전남도는 도심 외곽 개발 억제와 기존 도심 활성화를 위해 신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 등에 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용도지역 결정 검토·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 저성장 시대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발전 방향에 따라 지역 도시발전 방향을 세우고 공공복리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용도지역 결정 검토·심의 기준은 인구 증가 시대 양적 확산을 중심으로 이뤄진 확대 도시 계획을 수립하던 과거와는 달리

지역별 균형발전과 친환경적 도시발전, 저성장 시대에 적합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심의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부, 도, 시·군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사업 방향을 맞추도록 했으며, 주변 용도지역과 과도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전략·활성화에 맞춘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적정하게 용도지역을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증점 추진 중인 '압축 도심' 조성을 위해 외곽 개발을 억제하고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에 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인구 감소, 고령화, 저성장에 대비한 도시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앞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이 최대한 고르게 발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 요충지인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 차량들이 신호에 맞춰 통행하고 있다. 이 일대에는 을 상반기부터 하수관거 설치, 백운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건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이 예정되어 있어 큰 교통혼잡을 예고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백운광장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되나

국토부 평가 실사단 오늘 방문 현장 브리핑·질의 답변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평가 실사단이 '남구 백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실사를 위해 25일 광주시를 사전 방문한다.

광주시는 24일 "실사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백운광장 뉴딜사업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지난 2월 8일 남구청과 광주도시공사가 공동 제출한 백운광장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해 현장브리핑과 질의 답변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백운광장 일대는 2016년에 광주시가 수립한 '2025도시재생전략계획'에 중점시가지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남구 발전의 중심축을 이루는 중요지역이다. 1995년 남구청 개청 이전부터 이

미 쇠퇴하기 시작해 도심공동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도시공사와 함께 백운광장 일원 약 21만㎡를 대상으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청년창업몰(인큐베이션공간, 창업지원센터, 청년광장), 청년임대상가, 청년거리, 창업교육프로그램 등의 '청년 워킹 그라운드 조성', 푸른로봇 플랫폼, 푸른아트 플랫폼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플레잉 그라운드 조성', 마을소통 플랫폼,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맞춤형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리빙 그라운드 조성' 등의 계획이 담겨 있다.

임찬혁 시 도시재생정책과장은 "백운광장 일원은 원도심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으로 공공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실사단 방문에 따른 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청한 뉴딜사업의 선정 여부는 오는 3월 8일 발표평가와 3월 28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불친절 버스·택시 성과이윤 배분 축소

친절도 향상 고강도 혁신 추진

광주시가 불친절한 시내버스와 택시 회사에 대해 성과이윤 배분을 대폭 축소하는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한 고강도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 달 택시 요금이 인상된 것을 계기로 대중교통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 계획을 마련했다.

친절도 향상 기본방향은 시민들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위와 하위 회사의 성과이윤 배분 격차를 2배에서 3배로 늘리는 등 패널리티도 대폭 강화했다.

버스 분야는 행정처분 항목을 서비스 평가에 새롭게 반영하고 회사별 재정지원금 차등지원도 확대해 각 운수회사간 스스로 노력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유도한다.

택시 분야는 불친절의 주요 원인인 종사자의 단기일용직 고용형태를 근절시키고 실제 근무기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평가항목에 관련 지표를 추가한다. 또 운수종사자 해외연수와 시장 표창도 불친절 선

고 노력횟수에 따라 개인별, 회사별로 원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빛고을행복 시민모니터' 요원도 올해 100명이 늘어난 300명을 모집해 시내버스·택시 불편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시간 합의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 유도 ▲불법행위 단속 및 친절교육 강화 ▲운수종사자 친절 캠페인 확대 ▲운전원 건강관리 및 운수종사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사업을 병행한다.

하루 37만여 명(2017년 기준)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주요 민원은 승강장 통과, 승차 거부, 불친절 등이며 2016년 864건, 2017년 602건, 2018년 953건으로 하루 평균 2.6건이 접수되고 있다.

하루 33만여 명(2016년 기준)이 이용하는 택시 불만민원은 2016년 907건, 2017년 852건, 2018년 1483건으로 하루 평균 4건이 접수되고 있다. 송정역, 광천터미널, 광주공항 등 외지 방문객이 많은 곳에서 민원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25일부터 수소전기차 150대 보급

광주시가 25일부터 수소전기자동차 150대를 보급한다.

당초 주시는 수소충전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완료되는 시점에 보급 공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올해 보급수량 346대 중 150대를 우선 보급하기로 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 및 단체 등이다. 보급은 출고 순으로 진행된다.

보급 지원 자격을 갖춘 수소전기차

동차 구매 희망자(법인 포함)에 대해서는 차량 1대당 국비 2250만원, 시비 1000만원 등 총 325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25일부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대리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광주에는 수소전기자동차 207대가 보급돼 운영 중이며, 수소충전소는 동곡충전소와 진곡충전소 등 2기가 있다. 광주시는 2020년까지 총 8기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송정역~도라산역 왕복 특별열차 운행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광주 광산구, 4월 26일 출발

광주 광산구가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 광주송정역에서 도라산역까지 왕복하는 특별열차 운행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광산구는 코레일 광주본부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 26일 오전 7시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도라산역을 왕복하는 16시간 일정의 문화열차 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문화열차 투어는 종점인 도라산역에서 하차하여 도라전망대를 비롯해

제3광굴 및 통일플랫폼 등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장시간 운행하는 지루함을 떨치기 위한 방안으로 여행 과정에 각종 문화행사까지 마련했다.

광산구 이계두 복지문화과장은 "이번 문화열차는 분단 때문에 도라산역에서 멈추지만 조마간 신의주까지 썩씽 달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준비한 행사"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광산구 문화열차는 오는 3월 티켓 예매를 시작할 계획으로 현재 특별열차 이름을 SNS 등에 공모 중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발전소 분양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연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